

# 해군, 창설 50주년 制海 '95 훈련 실시

## — 헬기 탑재 공대함 미사일 발사 등 대규모 해상종합기동훈련

**올** 해로 창설 50주년을 맞는 해군은 9월 15일 오후 동해 해상에서 李養鎬 국방장관과 金東鎭 합참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해상종합기동 훈련을 실시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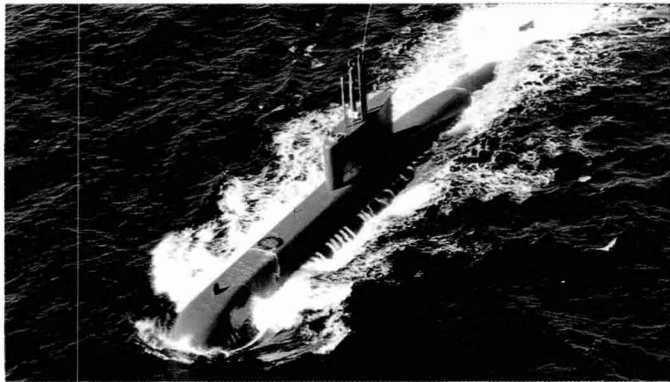
해군 작전사령부 예하 구축함(2천5백톤급), 한국형 호위함(1천5백톤급) 등 전함 10여척과 잠수함(1천3백톤급), 최신예 대잠 초계기 P-3C 등이 참가해 해상 및 항공사열, 대공사격, 대함사격의 순서로 진행된 이번 훈련에서 LYNX 헬기는 최신형 Sea-Skua 중거리 공대함 미사일을, ALT-III 헬기는 AS-12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, 목표물을 정확히 명중시키는 장관을 연출했다.

이와함께 지난 90년과 92년 환태평양훈련(RIMPAC)에서 탑건(Top Gun)의 영예를 차지했던 해군 수상함이 시속 25km로 항진하며 76mm 함포로 이동중인 수상 및 공중목표를 단발에 명중시키는 장면을 선보였다.

해군은 광복직후 45년 「海防兵團」이란 이름으로 창건된 이래, 93년 독일에서 잠수함을 도입할 전배치하였고, 올해 P-3C를 도입하였으며, 오는 97년까지 3천톤급 한국형 구축함(KDX)을 국내 건조할 계획으로 명실공히 최첨단 무기체계에 의한 수중, 수상, 공중에서의 입체전력을 구축해 대양해군으로 발돋움할 계획이다.



▲ 피아식별장치(IFF), 탐지장비(MAD)를 탑재한 ALT-III 헬기로부터 발사되는 AS-12 공대함 미사일



◀ 훈련에 참가한 209급 장보고 잠수함



▲ 대함 및 대잠전, 주요항만방어 및 긴급수송, 정찰 감시 등을 위해 도입된 LYNX 헬기로 부터 발사되는 Sea-Skua 공대함 미사일



◀ 해상 및 항공사열 모습. 해군 고유의 전통으로 함정, 항공기, 잠수함 등 모든 세력이 참가하여 상급 지휘관에 대한 경의와 필승의 신념을 나타낸다.